



김한규 “도의원 정수 확대 노력”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열려
김 의원 “조만간 증원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활동하게 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3일 “제주도의원 정수와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에서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확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송 위원장과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 김한규·윤준병·이해식·김문수·송재봉·이상식·임미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과 박덕흠·김승수·김은혜·박수영·배준영·서일준·강명구 의원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제주 출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2명 포함되면서도 의원 정수 확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원정수가 기존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를 통한 의원정수 확대가 필수적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의원정수를 45명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도의원 정수 확대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본 후 선거구 확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 일정표에 대해 “첫 회의에서 향후 논의와 관련한 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1월 말쯤 소위원회를 정하면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 의원 정수를 논의하는 소위원회와 정치개혁과 관련된 소위원회 등 2개 소위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소수 정당들이 비례 의원들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고, 대선구구제 관련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제적으로 논의를 해야 제주도의 의원정수 문제도 그 틀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만간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주변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정개특위 논의는 1월 말 정도 돼야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고 빨라야 3월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13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진보당 도당 “후보들 제2공항 입장 내야”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경쟁 상대들에게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지난 20년간 제주도정은 개발과 투자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내일이라도 도민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처럼 실패한 정책을 반복해 왔다”며 “그 대표적 정책이 바로 제주 제2공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도지사 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물론 갈라진 도민사회 통합과 공동

제복원을 위해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진보당은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정책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며 “개발과 대기업 투자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에서 벗어나 제주경제를 내수 중심, 도민 살림살이 중심으로 대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문화관에서 제2차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2030년까지 추진할 제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 관계기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노동자의 삶 안정과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 실행력과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국교정상화 환갑… 손잡고 미래로”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한일 정상회담 공동발표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AI 협력·범죄 공동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앞으

로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간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국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공조에 뜻을 모았다. 또 AI 협력 및 스파크범죄에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 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진전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발견된 바 있다”며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청년 세대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출입국 간 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부미현기자

민주당 “출마자 간 과도한 비방은 해당행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군 간 신경전이 과열하는 양상을 피자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전날 17개 시도당 위원장에게 ‘지역위원회 및 공직자, 주요 핵심 당원 활동 지침 안내의 건’ 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당은 공문에서 “지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출마 예정자들 간

과도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흥보 등으로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런 조치는 일부 지역에서 수위 높은 비방전과 현수막 훼손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취해진 것이다.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642호
애월읍 봉성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애월읍 봉성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별첨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 명: 애월읍 봉성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봉성리 222-152, 222-153
○ 규 모: 89,097㎡
○ 사 업 비: 360억원
○ 사업기간: 2025. 12. 30. ~ 2028. 12. 31.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마로어드벤처(대표: 강민석)
○ 주요시설: 전시관 및 학습관, 체육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2. 열람 기간
2025. 12. 30. ~ 2026. 1. 23.(25일간)
※ 의견 제출기한: 2026. 1. 28. 까지

3. 관계서류
열람장소 비치 및 전자파일 별첨 게재

4.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및 애월읍사무소

5. 의견제출 장소
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3154, FAX: 064-710-3029)
※ 의견 제출 서식 별첨

나주김씨인충공파종친회 신년하례회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종친님 가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 신년하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2026년 1월 17일(토) 11:00

장소: 하니크라운호텔 별관 2층

■ 참석대상: 종친 전원

■ 행사내용 - 선조에 대한 묵념

- 종훈 제장, 종친회가 제장
- 신년하례 맞절
- 제주나주인상, 효열상 시상
- 신년사, 격려사
- 신년 복떡 자르기
- 만찬

■ 연락처: (064)712-0064

나주김씨인충공파종친회

회장 김 경환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 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祉(조) 직원
수사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럭이장 / 싱크대 / 산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 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 064.742.6234

문의 | 010.7599.6234

그랜드 보청기
‘2026년 병모년 고객 감사제’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그랜드 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귓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구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칭찬검사

신축을 훈저 절화 주심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 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마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층

제주시버스터미널